

# 건축가 김정희와 평양시 복구 총 계획도: 신화와 역사

## The General Plan of Reconstruction of Pyongyang and the Role of Kim Jung-hee: Myths and History

박 동 민\*

Park, Dongmin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 Abstract

During the 1950s, the North Koreans rebuilt their capital—Pyongyang—as a modern city under the principle of Soviet urban design. One North Korean architect, Kim Jung-hee, has been widely credited since the late 1980s as the master architect of the General Plan of the city’s reconstruction. While Kim Jung-hee played a crucial role in its reconstruction, his heroic image as the founding architect of Pyongyang is considerably attributed to North Korea’s mythical narratives rather than his historical activities. This paper argues that Pyongyang’s postwar urban design was not a work made by a single actor, Kim Jung-hee; rather, it was a long-term collaborative project in which a team of North Korean architects and Soviet technical advisors took their respective roles. Beginning in the late 1980s, North Korea, which had been struggling with economic decline and an increasing sense of lagging behind in its rivalry with its Southern counterpart, used heroic narratives during the 1950s’ postwar reconstruction period as an important propaganda tool for their regime. In this mythical narrative of Pyongyang’s reconstruction, massive economic and technical aid from other communist countries has often disappeared, and the memory of the architects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construction but later purged in North Korea have also completely vanished. Kim Jung-hee, meanwhile, remained in this epic as the founding architect who rebuilt the city in faithful accordance with the leadership of Kim Il Sung.

주제어 : 북한, 평양, 김정희, 한국전쟁, 재건, 총 계획도, 도시계획

Keywords : North Korea, Pyongyang, Kim Jung-hee, Korean War, Reconstruction, General Plan, Urban Design

### 1. 서론

평양은 한국전쟁 중 UN군의 지속적 폭격으로 인해 폐허로 변했다. 1953년 7월, 양측이 휴전협정을 맺었을 때, 평양은 도시로서 전혀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sup>1)</sup>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아이러니하

게도 평양이 좀 더 근대적인 모습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평양의 모습을 누가 설계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큰 이견 없이 건축가 김정희를 ‘평양의 설계자’로 지목해왔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이 나자 소련에 유학중이던 김정희는 평양으로 돌아오는데, 1951년 1월 김일성은 그에게 평양의 복구건설 총 계획도의 작성을 맡긴다. 그 결과로 1951년 5월에 만들어진 것이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이며, 이후의 평양 재건은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2)</sup>

\* Corresponding Author : dongmin.park@gmail.com

본 연구는 2017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의 발표 내용의 일부를 심화 발전한 것임.

이 논문은 2017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펠로우십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1)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

비, 2013

2) 리경심, 「수령님께서 잊지 못해 하시는 건축가」, 조선건축, 1992년 2호, 8~11쪽

이 연구는 이러한 ‘평양의 설계자’로서의 김정희의 역할을 재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평양의 전후 도시 계획은 김정희라는 개인이 만들어낸 총 계획도의 실현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김정희가 포함된 다수의 북한 건축가들과 소련의 기술고문들이 참여한 다년간에 걸친 복합적인 프로젝트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평양의 전후 도시계획에서 김정희의 참여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단독 행위자로 두고 만들어낸 평양시 재건 신화를 해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된 연구 대상은 평양시 도시 계획 자체가 아닌, 그 계획을 담당한 건축가들, 특히 이 중 건축가 김정희의 역할이다.

김정희라는 단독 행위자와 1951년 총 계획도라는 유일한 핵심 인자로 구성된 평양시의 재건 서사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 번째는, 김정희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재건에 참여하였던 국내외의 다른 행위자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평양시의 재건 계획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해갔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빠짐에 따라, 평양시의 재건이 하나의 순간, 구체적으로 1951년 완성된 것으로 알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는 김정희를 ‘평양의 계획가’라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평면적인 모습의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그가 실제로 평양의 재건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평양 재건에 있어서 김정희 외에 다른 행위자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을 밝히고, 이 과정을 통해 김정희가 구체적으로 평양 재건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지금까지의 김정희에 관한 연구는 그 폭에 비해 깊이가 소략하다. 북한학계는 개별 주체와 그들의 에이전시(agency)보다는 행위자가 속한 집단의 노력, 혹은 김일성과 당의 지도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 행위자의 역할을 그대로 서술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출판된 문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950년대 중반 본격화된 김일성 유일체제는 1967년 갑산과의 숙청으로 완성된다. 그 이후 김일성 개인숭배는 사회, 교육, 문화 등 북한의 모든 분야를 지배했다. 평양의 전후재건 역시

엄격한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에 의해 파괴된 평양시의 영웅적 복구”라는 김일성의 중요한 정치적 업적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의 문헌에서는 해외의 지원에 관한 서술은 점차 사라지고 김일성과 당의 영웅적 서사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북한의 건축잡지인 『조선건축』이나 이화선의 『조선건축사』 등과 같은 80년대 이후 자료를 비판 없이 이용하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한편, 북한 밖에서의 김정희 연구의 어려움은 주로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1차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생산한 2차 사료만으로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을 재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정희의 행적에 관한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유사한 이력을 가진 동명이인의 존재(이하 김정희B라 칭함)를 들 수 있다. 이를테면 1996년 북한연구소에서 발행한 『최신 북한인명사전』은 김정희에 관한 다양한 이력을 신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이력은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희가 사망한 1975년 이후의 이력은 김정희B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흥미로운 점은 1979년 3월에 건축가동맹 위원장에 선출된 이력이다.<sup>3)</sup> 2005년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한 『북한인명사전』에도 김정희가 1979년 12월에 건축가동맹 중앙위 부위원장이었다는 기록이 있다.<sup>4)</sup> 이 두 개의 기록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북한 건축계에서 활약하던 또 다른 김정희가 존재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경력의 혼동이 50년대의 이력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전후 복구기에 김정희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 이상의 인물이 북한 건축계에서 활동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한국에서 두 사람의 이력에 대한 혼동이 뿌리 깊다는 점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발행된 북한 인명사전에 등장하는 김정희의 이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자료의 양과 신빙성의 부족은 본 연구를 포함한 모든 북한사 연구가 가지는 어려움이다. 이 연구는 1950년대에서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학계에서 생산한 평양시 재건과 관련한 문헌 중 김정희를 비롯한 행위자에 관한 부분을 수집하고, 이를 각각의 사료들이 생산된 시기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특히, 1950년대 발행된 『로동신문』, 『건축과 건설』, 『평양지』 등 재건과 관련된 북한 측 자료, 그리고 소련 및 기타 공산 국가에서 작성한 외교 및

3) 북한연구소 편, 『최신 북한인명사전』, 북한연구소, 1996, 241쪽

4)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 서울신문사, 2005, 308쪽

정부 문서는 이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0년대 자료 역시 김일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은 있으나, 이 시기 김일성의 정통성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상당부분 소련과 중국 등 해외의 지원에 기인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료는 평양 재건에 있어 외부의 역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시선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 행위자(김정희), (2) 계획(1951년 평양시 총 계획도), 그리고 (3) 결과(평양시의 실제 재건) 사이에 만들어진 신화화된 관계의 해체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평양시 재건 계획에 참여한 행위자들, 그들이 만들어낸 계획도들, 그리고 실제 평양시의 재건 양상은 각각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하나의 등치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 기록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신화화된 서사에 기인함을 밝힌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김정희의 간략한 일대기와 함께 그의 1953년 작 『도시건설』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1951년부터 생산된 몇 개의 평양의 도시 계획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김정희 외의 국내외 조력자의 존재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말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김정희에 관한 신화화된 서사의 생산과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재 학계에 널리 알려진 김정희의 역할은 그의 실제 50년대 행적보다는 이후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밝힌다.

### 3. 김정희와 그의 1953년 작 『도시건설』

김정희는 1921년 평안북도 운전군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정주군 오산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외국으로 건너가 건축 교육을 받는다.<sup>5)</sup> 1945년 해방 당시 불과 24살이었던 김정희는 이렇다 할 실무 경력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전체에서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 건축교육을 받은 사람이 30명이내였음을 생각하면,<sup>6)</sup> 경험이 일천한 김정희라 할지라도 북한에서는 중요한 기술 인력이었다. 김정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부터 조선 건축가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산업부장의 높은 직책도 맡게 된다.<sup>7)</sup> 그 후 1947년, 김정희는 소련의 고등교육기관에 파견되는 유학생의 일원

이 되어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난다.<sup>8)</sup> 소련에서 최신의 건축 지식을 배우고, 공산세계 지식인의 언어였던 러시아어에 능숙해진 김정희는 북한 건축계의 최고 엘리트의 하나로 성장한다. 특히, 전후 시기 건설 사업이 한국전쟁 이전과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국가 사업이 되면서 그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7월, 김정희는 북한의 국가학위수여위원회에서 학사를 수여받는다.<sup>9)</sup> 북한의 학사는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가 아니라, 일정한 학술적 업적을 쌓은 인물에게 국가가 수여하는 명예칭호로서,<sup>10)</sup> 김정희는 북한 건축계에서 학사를 수여받은 최초의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건설대학 학장을 맡은데 이어 1954년 새롭게 창립한 조선 건축가 동맹의 중앙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더 나아가 몇 년 후에는 국가 건설 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게 된다.

김정희는 5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기까지 김응상을 제외하면 건축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휴전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그는 조선 건축가 동맹의 위원장을 오랜 기간 역임하며 도시 설계 외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설계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평양 대극장이나 평양 학생소년궁전의 설계에도 일부 참여하였으며, 북한의 농촌 계획에도 활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또한, 김정희는 조선 건축가 동맹의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해외 건축 관련 행사에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그가 참여한 국제 행사로는 1957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측량 학회, 1958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5차 국제 건축가 동맹 대회, 1961년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6차 국제 건축가 동맹 대회, 1963년 쿠바 하바나에서 열린 제7차 국제 건축가 동맹 대회 등이 있다.<sup>12)</sup>

김정희의 경력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평양의 전후 도시 계획 사업이다. 평양의 도시 계획이 그의 명성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평양의 도시계획

5) 『조선대백과사전 4권』, 백과사전출판사, 1996, 191쪽  
 6) 김일성대학발령건 제26호,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 1947,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  
 7) 리경심, 앞의 글, 1992, 8쪽

8) 『조선대백과사전 4권』에 따르면, 김정희는 1947년 9월에서 1953년 7월까지 외국에 유학했다고 한다.  
 9)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7』, 조선중앙통신사, 1957, 448쪽  
 10) 정영수, 「북한의 고등교육」, 학생생활연구, Vol. 19, 1999, 8~9쪽  
 11) 리경심, 앞의 글, 1992, 8~11쪽  
 12) 그 외에도 김정희는 1956년에는 조선 건축가 동맹 대표로서 독일, 소련, 중국을 방문하여 여러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1963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제8차 국제 건축가 동맹 총회에 북한 측 대표로 참가하였다.

에서 김정희의 역할에 관해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김정희가 1953년 12월에 발표한 『도시건설』은 평양의 도시계획과 그의 참여에 관한 정보를 주는 중요한 자료다. 김정희는 이 책의 서두에서, 그가 1951년 북한의 도시 복구 계획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약 1년 반에 걸쳐 러시아어로 된 논문으로 완성하였는데, 그것이 이 책의 원문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이 러시아어 원문은 휴전 이전에 완성되었는데, 그것을 대중화하여 한국어로 출판한 것이 이 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3)</sup> 하지만, 이 책은 러시아어로 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데 그치지 않고 1953년 후반부의 평양 도시계획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통해 1953년 말 김정희가 평양 도시 계획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집필에는 소련 건축 아카데미의 후보 원사인 니콜라이 폴야코브(Николай Харлампович Поляков) 교수의 지도가 있었다.<sup>14)</sup> 폴야코브가 도시계획에 관한 다수의 책을 출판한 도시계획 전문가였으며, 1948년에서 1952년 사이에 소련 건축 아카데미 도시계획 연구소의 수석 건축가였음을 생각하면 폴야코브의 소련 도시계획에 관한 지식이 직접적으로 김정희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15)</sup>

이 책은 북한 도시의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담고 있다. 김정희는 이 책의 서론에서 북한 도시의 재건은 소련의 우수한 도시계획 경험을 이용하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책은 북한의 도시계획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한반도에 있었던 도시들의 특징 그리고 소련 및 공산권 국가의 도시계획의 특징을 각각 1장과 2장에서 소개한 뒤, 나머지 두 개의 장에서 북한 도시의 재건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원리에 대해서 쓰고 있다.<sup>16)</sup>

김정희의 『도시건설』은 주로 북한 도시의 재건에 필요한 역사적 혹은 이론적 내용을 싣고 있으나, 평양의 중심부인 평양역에서 모란봉까지의 계획은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희가 실제로 작성한 계획 시안도 한 장 담고 있는

데 이는 이 후 평양시의 계획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 도면은 김정희가 직접 작성을 언급한 유일한 도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림 1. 평양 중심부 평면 계획 시안, 김정희 (김정희, 『도시건설』, 1953)

<평양 중심부 평면 계획 시안>이라는 이름의 이 도면은 스탈린 거리와 중앙 광장 주변의 재건계획도인데, 구체적으로 현재의 평양 대극장과 대동문 영화관 사이에 해당한다. 김정희는 책에서 기존의 18~30m의 폭이던 스탈린 거리를 35~40m로 확장하고, 대로의 가운데는 산책로로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 거리의 구성에 대동강변의 대동문과 련광정의 구성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스탈린 거리의 남쪽 끝에는 기념비나 인상적 건축물을 배치하고, 중심의 광장은 대동강으로 넓게 개방되어 강변의 녹지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7)</sup>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의 도면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도면의 중심에는 중앙 광장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에 위치한 건물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동강과 연결되며, 대동강변은 녹지로 개발되었다. 김정희가 주장한 대로의 가운데는 산책로도 표시되어 있다.

이 계획도의 존재를 통해 김정희가 평양의 중심부 계획에 참가한 바 있으며, 또 그 계획의 핵심 원리가 상당 부분 실제로 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로의 북쪽 끝이 현재처럼 모란봉까지 직접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며, 세부적인 가로 의 형태도 이후의 계획과는 다르다. 그가 대로의 가운데에 설치하고자 한 산책로 역시 실제로는 남쪽의 일부만이 채택되었다. 또한, 중앙 광장의 위치가 남산의 동편이라기보다는 과거 평양시 인민위원회(일제 강점기의 평양 시청사)의 앞쪽, 즉 전쟁 전의 중앙 광장의 위치를 그대로 사용한 점은 이후의 계획과의 차이점이다. 이를 통해 이 중심부 계획이 이 후 상당한 수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13) 김정희, 『도시건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1953, 2쪽

14) 김정희, 앞의 책, 1953, 3쪽

15) 폴야코브의 간략한 이력은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 인터넷 알카이브에서 확인하였다. (<http://www.alexandryakovlev.org>)

16) 김정희, 앞의 책, 1953, 3~5쪽

17) 김정희, 앞의 책, 1953, 228~230쪽

도면의 우측 상단에는 “평양특별시 중앙부”라는 글씨가 있다. 평양이 1952년 12월 특별시에서 직할시로 개편했으며,<sup>18)</sup> 1952년의 계획도에 “평양특별시”가 아닌 “평양시”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도면은 김정희 본인이 북한의 도시 복구 계획에 대한 사업을 수행했다고 한 1951년, 혹은 늦어도 1952년 전반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는 11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참고 사진과 도면이 실려 있는데, 김정희는 이 중 네 장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 장이 위에서 언급한 <평양 중심부 평면 계획 시안>이며, 나머지 세 장은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채 <도시 중심부 평면 계획의 일례>, <도시 중심부 강변의 빠노라마 시안>, <도시 중심부 투시도> 등의 이름으로 실렸다. 이 세 개의 도판은 실제 평양의 계획과 유사성을 찾기 어려우며, 한 장의 도면에서 평양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한 점을 보면 다른 세 장을 평양의 재건도로 보기는 어렵다. 책이 출판된 1953년에는 이미 몇 개의 평양시 총 계획도와 세부 조감도가 나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중요한 도면대신 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다른 세 개의 계획 시안을 포함시켰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김정희가 평양시의 재건을 총괄 담당할 인물이라면, 자신의 총 계획도를 책에 실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에 실린 <평양 중심부 평면 계획 시안>이 김정희 자신이 직접 낸 유일한 시안이거나, 혹은 그가 작업한 계획의 내용이 이 후 크게 변경되어 1953년 책이 출판된 시점에서 평양의 계획도라는 이름으로 책에 실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도판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의 본문에서도 김정희는 평양의 중심부를 제외하면 전체 평양의 계획이나 동평양 혹은 서평양의 복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론적 논의 외에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이후 서평양의 중심이 되는 모택동 광장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동평양의 경우 대동강의 수면을 조정하는 큰 공사를 한 후에야 본 건설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예측만을 하고 있다.<sup>19)</sup>

이처럼, 그의 책을 통해 김정희가 전쟁 중 평양시

중심부의 재건 계획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큰 의문을 던지게 된다. 실제로, 『도시건설』에서 김정희는 북한 내각이 1951년 봄에 도시 건설성에 평양시 복구 총 설계 계획 작성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고, 그 결과로 전쟁이 끝나기 전 이미 평양 도시 재건에 관한 몇 개의 설계안이 나왔다고 했다.<sup>20)</sup> 앞으로 소개할 1951년과 1952년의 총 계획도, 중앙부 계획도 및 조감도가 이에 해당한다.

#### 4. 평양시의 재건 계획

##### 4-1. 1951년 평양시 재건 총 계획도

평양의 재건계획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1951년 1월 21일에 김일성이 북한의 건축가들에게 평양시 복구 총 계획도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의견이 북한 학계의 정설이다.<sup>21)</sup> 중국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1950년 12월 6일 평양을 수복하지만,<sup>22)</sup> 육상에서 열세에 몰린 연합군이 북한 주요도시에 치명적 폭격을 가하는 것도 이즈음이다. 김태우의 연구에 따르면, 이전의 평양에 대한 폭격이 주요 목표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1951년 1월 3일의 폭격을 비롯해서 이 후 시기의 폭격은 평양 도시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다.<sup>23)</sup> 평양의 수복과 그 도시의 치명적 파괴라는 두 가지 연이은 사건은 재건 계획의 필요를 낳았다. 1951년 1월 13일, 북한 내각은 공화국 경제 및 문화의 제1차 복구 대책에 관한 결정 제191호를 발표하는데,<sup>24)</sup> 평양시 재건에 대한 논의 역시 이즈음에 시작되었음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 때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 김정희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것이 1951년의 평양시 총 계획도다. <그림 2> 이 계획도는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평양의 재건에 관한 서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김정희의 업적과 관련해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sup>25)</sup>

이 계획도는 1대 10,000의 축척을 가지고 있는데, 원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미터가 넘는 크기였다. 크기에 비해 이 계획도는 구체적 블록의 형태에 대한 정

20) 김정희, 앞의 책, 1953, 47쪽

21) 김일성, 「전후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74~80쪽

22) 『해방후 10년 일지, 1945~1955』, 조선중앙통신사, 1955, 89쪽

23) 김태우, 앞의 책, 2013, 321~322쪽

24) 『해방후 10년 일지, 1945~1955』, 조선중앙통신사, 1955, 120쪽

25) 리경심, 앞의 글, 1992, 8쪽

1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참고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SO302>)

19) 김정희, 앞의 책, 1953, 235~236쪽

보는 없이 지형과 가로와 도로의 형태, 그리고 주요 건물의 위치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 이름이 <평양특별시 개건 종합계획략도>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획도는 평양 재건의 방향만을 간략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그림 2. 평양특별시 개건종합계획략도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평양건설전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이 계획에서 볼 수 있는, 평양역에서 시작해서 모란봉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축은 이후의 계획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조선시대 생겨서 일제 강점기를 걸쳐 지속된 평양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평양의 보통강 유역과 동평양은 쉽게 침수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평양에서 주요 건물은 동쪽으로는 대동강, 서쪽으로는 만수대, 장대재, 남산, 해방산, 창광산 등의 구릉 지형 사이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과하는 길이 바로 평양시 기차역에서 시작하여 인민군 거리를 거쳐 스탈린 거리를 통해 모란봉에 이르는 도시의 중심축이다. 1951년 계획은 기존의 길을 넓히고, 좀 더 직선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1951년 계획도의 중심부는 김정희의 『도시건설』에 등장하는 평양시 중심부 계획과 유사하다. 스탈린 도로의 가운데에 산책로가 형성된 점이나, 대로의 북쪽이 대동문부근에서 끊긴다는 점, 그리고 특히 중앙 광장이 과거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근에 계획된 점을 보면 김정희가 이 1951년의 계획도의 작성에 참여했음은 분명하다. 중앙 광장의 위치는 특히 흥미롭다. 『김일성전집』에 따르면, 1951년 1월 21일 김일성이 건축가들에게 중앙 광장의 위치를 평양시 인민위원회 앞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1951년의 계획도에서는 김일성의 주장대로 전쟁 이전의 중앙 광장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sup>26)</sup>

이 계획도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도면의 우측 하단에 1951년 5월 20일이라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시 계획도에 제작연도가 기입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날짜가 크게 표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는 이 계획도에서 1951년 5월 20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 날짜가 이후 추가된 게 아니라면, 이 계획도를 작성한 개인 혹은 집단은 1951년 5월 20일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작성 시기로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추후의 다른 계획도와 구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의 평양시 도시 계획이 이 1951년 계획도에 기초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1951년의 계획도를 이후의 재건 계획도나 실제 평양이 재건된 양상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말한 중앙 광장이 이전의 평양시 인민위원회 앞에 계획되었다는 점 외에도, 대동강을 두 개가 아닌 네 개의 다리로 연결한 점, 평양역과 보통문을 잇는 룬환선 거리가 계획되지 않은 점, 서평양이 흐리게 표시되어 있으며 모택동 광장 주변이 계획되지 않은 점, 동평양이 크게 계획되었으며, 그 중심에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하던 사선형 도로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은 이후의 계획과 대비되는 1951년 계획도만의 특징이다.

북한이 평양을 재탈환한 1950년 12월 이후로도 평양은 지속적인 폭격의 대상이었다. 1952년 7월과 8월의 대공습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파괴를 겪으면서 평양에는 다시 쓸 수 있는 건물이 차츰 줄어들었다.<sup>27)</sup> 이처럼 피해가 덜했던 1951년 초의 도시상황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1951년 재건 계획도는 이후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1952년 당시 조선 건축가동맹 위원장인 김응상은 자신의 회고록 『주체건설력사의 갈피를 더듬어』에서 자신이 평양시 복구건설 총 계획도를 처음 본 것이 1952년 가을 소련이었다고 기록했다. 그 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세계 건축가 연맹 모임에 평양시 총 계획도를 소개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이 잠시 소련을 방문했고, 거기서 자신에게 그 계획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sup>28)</sup> 이를 통해, 당시 북한 건축계의 수장인 김응상이 1951년이 아닌 1952년을 평양시 총 계획도가 만

26) 김일성, 앞의 책, 1995, 78쪽

27) 김태우, 앞의 책, 2013, 367~369쪽

28) 김응상, 『주체건설력사의 갈피를 더듬어』,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64쪽

들어진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52년 4월 21일, 「전후도시복구 건설준비사업을 추진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김일성은 북한의 내각 회의에서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도시복구 건설 총 계획을 미리 작성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29)</sup> 만약 1951년 5월의 평양 재건 총 계획도가 완성된 도시 계획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김일성이 1952년에 다시 평양 재건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1951년의 전후복구 계획도는 이후 평양 재건 계획을 위한 초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김응상은 1951년 계획도는 ‘설계초안’이며, 이 초안을 1년 뒤인 1952년 5월에 완성된 평양시 복구 건설 총 계획도와 구분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1951년 5월 중순 건축가들에 의해 평양시 복구 건설 총 계획도의 초안이 완성되었는데, 김일성이 수정을 지시했고, 이 수정된 설계도를 1952년 5월에 완성했고, 이에 대해 김일성이 다시 수정을 지시했다고 한다.<sup>30)</sup>

실제로 이 1951년의 평양시 총 계획도는 평양 재건 계획을 보여주는 최초의 도면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김정희 자신이 쓴 『도시건설』을 포함해 1950년대 문헌은 물론 그 후 60, 70년대의 문헌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1951년의 계획이 이후 수정되면서, 후에 변경된 계획도가 더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건축계에서 평양의 재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1980년대 말을 즈음해서 이 1951년 계획도는 김정희의 서사와 함께 다시 등장한다.

#### 4-2. 1952년 평양시 재건 총 계획도

김응상에 따르면, 1952년 5월 평양시 총 계획도가 완성된 후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전람회를 열었다고 한다.<sup>31)</sup> 평양 재건에 관한 북한의 기록영화 <재더미를 헤치고>에는, 이 1952년 전후 건설 전람회가 소개되는데, 이 영상에는 김정희의 역할이나 1951년 총 계획도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지만, 새로운 모습의 평양시 총 계획도를 비롯하여 중심부의 투시도와 조감도가 등장한다.<sup>32)</sup> <그림 3>



그림 3. 평양시 총계획략도, 1952년 중반 이후 제작 추정 (건축과 건설, 1955년 12월호)

1952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계획도는 이전의 계획도와는 달리, 중앙 광장이 평양시 인민 위원회 앞에서 현재의 남산 동쪽 기슭으로 옮겨 갔으며, 대동교도 네 개에서 두 개로 변했다. 본평양에는 룬환선로가 계획되었고, 서평양은 좀 더 명확하게 구획되었다. 1951년 계획에서 볼 수 있는 동평양의 사선형 가도는 축소되고 격자형 블록으로 대체되었다. 현재 평양의 모습과 비슷한 계획도가 틀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1952년의 <평양시총계획략도>는 앞서 1951년 계획도와 마찬가지로 간략한 계획도지만, 재건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인 1955년 12월에 발간된 『건축과 건설』의 창간호에서 평양시 재건 총 계획도로 소개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52년의 평양시 계획도의 작성에 김정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계획도가 1951년의 계획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김정희가 1952년의 계획도의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그가 독립적으로 1952년의 계획도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952년의 계획이 김정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1953년의 『도시건설』에 1952년도 총 계획도 혹은 이 시기의 중심부 도면이 실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된 평양시 총 계획도 역시 당대가 아닌 후대에 촬영하여 편집해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9) 김일성, 『김일성전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462~466쪽

30) 김응상, 앞의 책, 1998, 69쪽

31) 김응상, 앞의 책, 1998, 69쪽

32) 『위대한 력사 제6부: 재더미를 헤치고』, 조선기록영화촬영소 편집, 1982 제작, 2008년 방영. 이 자료는 1982년 최초로 제작되었으나, 필자는 2008년 조선중앙 TV를 통해 재방영된 자료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 기록영화의 내용이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이 영상물에 등장하는 1952년 전후 건설 전람회와 여기에 전시

한국 전쟁 중 그의 행적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키운다. 『조선대백과사전』에서 김정희에 관한 설명에는 그가 1947년 9월에서 1953년 7월까지 외국에 유학하였다고 하였는데,<sup>33)</sup> 실제로 그는 1951년 초에 평양시 복구 계획에 참여한 후, 1953년 7월 휴전까지의 상당한 기간을 모스크바에서 체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는 자신이 1년 반 동안 집필한 『도시건설』을 폴야코브 교수가 지도했다고 했는데, 폴야코브는 평양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 또한, 이 책에는 1952년에 출판된 최신 문헌을 포함해 소련 측의 다양한 문헌이 인용되었는데, 전쟁 중인 평양에서 이러한 최신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문이 러시아어로 작성되었다고 한 점 역시 그가 이 책의 작성을 모스크바에서 했을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만약 김정희가 1951년 중반에서 휴전까지의 상당 기간을 모스크바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이 시기의 평양시 도시 계획은 김정희가 아닌 평양의 다른 건축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전쟁 시기 평양시 재건 총 계획도의 작성에는 북한의 도시 건설성(1951년 12월 도시 경영성에서 개칭) 소속 건축가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정희는 그의 책 『도시건설』에서 북한의 도시 건설성이 1951년 봄부터 평양시 복구 총 계획도의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sup>34)</sup> 1955년의 글에서도 도시 건설성에서 전쟁 시기 만들어진 평양시 총 계획도의 에스키스[약도]를 계속 연구 수정하였다고 했다.<sup>35)</sup> 도시 건설성에서 도시의 건설을 담당하는 부문은 1955년부터 건설성으로 분화되는데, 이 중 건설성 소속 중앙 도시 설계 연구소는 전후 평양시 도시설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sup>36)</sup> 이곳에는 소련 유학파를 포함해 당시 북한 건축계의 최고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로식, 강처한, 리형, 신순경 등이 그들이다. 2007년 10월 26일 『로동신문』 기사는 한국 전쟁 시기 평양시 총 계

획도의 작성에 중앙 도시 설계 연구소(현 평양도시계획 설계연구소)가 큰 몫을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다.<sup>37)</sup> 이 기관이 1952년에 도시 건설성 산하였음을 미루어보면, 김정희 외에도 도시 건설성 산하 건축가들이 1952년 총 계획도를 포함해서 한국 전쟁 시기 평양시 재건 계획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은 분명하다.

#### 4-3. 휴전후의 평양시 도시 계획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평양시의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휴전 이틀 후인 7월 29일, 평양시 복구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김일성이 그 위원장을 맡았다. 다음 날인 7월 30일에는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한 내각 결정 제125호를 발표하고 평양시의 복구 방향을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면, 평양시 복구의 전체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평양이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발전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우선 3년을 1차 복구 건설 기간으로 잡았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평양은 대동강을 기본축으로 정하고, 그 연안에는 산책로를 설치한다. 기본 산업 지역은 대동강과 보통강의 하류에 위치시키며, 기존의 서평양역은 철거 이전한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주요 도로와 광장을 녹화하며, 병원, 학교, 문화 시설, 상업, 행정 시설을 도시 전체에 고루 분포시킨다. 기존의 85~90%에 달하던 건축 밀도를 20~25%로 낮추고, 시민 1인당 거주 면적을 과거 1~2평방미터에서 6~9평방미터로 늘린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sup>38)</sup>

김민아는 박사논문에서 내각 결정 125호에서 주장한 건축 밀도(20~25%)와 1인당 거주 면적(6~9평방미터)이 김정희의 『도시건설』에서 인용한 야. 뻬. 렵첸코의 『도시 계획』에 나오는 건축 밀도(24~35%)와 <소비에트 동맹 건설 법규 초안>이 정한 1인당 거주 면적(2~10평방미터)과 유사하며, 이로 미루어 김정희의 『도시건설』에서의 생각이 내각 결정 125호에 반영된 것이라 주장했다.<sup>39)</sup> 김정희의 『도시건설』의 내용과 내각 결정 125호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김정희가 도시 계획의 전문가였다는 점에서, 내각 결정 125호에 김정희의 생각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다만, 김정희의 『도시건설』 역시 소련의 도시 계획이론을 정리

33) 『조선대백과사전 4권』, 191쪽

34) 김정희는 도시 경영성, 도시 건설성, 건설성 등 시기적으로 변하는 행정 기관의 이름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도시 경영성이 도시 건설성으로 이름이 바뀌는 시기가 1951년 12월 1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951년 봄 재건계획이 시작했을 당시는 도시 경영성이 평양시의 설계를 담당했다고 하는 편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김정희, 앞의 책, 1953, 47쪽; 로동신문, 1951년 12월 17일 기사 참고)

35) 김정희, 「해방된 조선 인민의 도시 건설」, 건축과 건설, 1955년 1호, 8~9쪽

36) 1955년 1월 20일부터 도시 건설성은 도시의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성과 도시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 경영성으로 나뉘는데, 도시 계획은 건설성에서 주로 담당했다. (로동신문, 1955년 1월 24일 기사 참고)

37) 오철훈, 『보다 휘황한 레일을 내다보며』, 로동신문, 2007년 10월 26일

38)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결정 제 125호, 1953년 7월 30일』, 로동신문, 1953년 8월 3일

39) 김민아,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28쪽



한 책이라는 점에서, 내각 결정 125호의 작성에 소련의 문헌이 직접 이용되었거나, 소련 도시 계획을 공부한 김정희 외의 다른 북한 건축가나 소련 기술 고문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내각 결정 125호가 주로 도시 발전의 일반적인 방향을 담고 있는데 반해, 중심부 계획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의 중앙 광장은 3.6헥타르로 하며, 남산 동쪽 기슭에서 대동강과 직교하는 대동문을 포함하는 위치에 정한다. 이 광장은 대동강에 면하게 개방한다. 남산 위에는 중앙 광장 축을 따라 한국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탑을 세운다. 또한, 폭 45미터에 길이 2.5킬로미터의 스탈린 거리를 대동강 축과 평행하게 재건한다. 이 대로의 남쪽에는 중앙 대극장(이후 평양 대극장)과 스탈린의 동상을 세우고, 북쪽에는 광장을 배치해 모란봉 공원의 입구로 조직한다는 것이다.<sup>40)</sup> 하지만, 평양 중심부 외의 다른 지역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평양의 도시 계획은 도시 단위에서의 계약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총 계획도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담고 있는 세부 계획도로 이루어진다. 휴전 시기까지 이 둘 모두 불완전했다. 휴전의 시점까지도 본평양 외의 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중심부조차 몇 가지 안이 나오는 정도에 그쳤다. 휴전 나흘 뒤인 1953년 7월 31일 『로동신문』에는 평양시 중심부의 간단한 계획 모형과 몇 개의 투시도 시안만이 등장한다.<sup>41)</sup> <그림 4> 이 시기의 투시도에 등장하는 건물들도 이 후 계획에서 크게 바뀐다. 본평양의 중심부 계획을 제외하면 평양 대부분 지역의 도시 계획은 휴전 후에 구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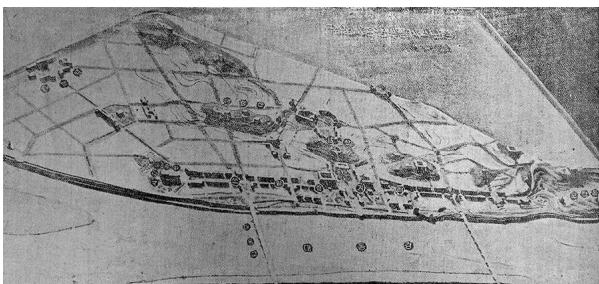


그림 4. 평양시 제1차 복구 중심부 총 계획 모형 (로동신문, 1953년 7월 31일)

이를 테면, 평양시 전후 복구에서 가장 중요했고, 따라서 가장 이른 시기에 계획이 이루어진 중앙 광장(이

후 김일성 광장)의 경우도 휴전당시 그 위치와 계약적인 건물 구획만이 정해져 있었다. 광장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위치한 종합 청사를 제외한 주변부 계획은 몇 년간에 걸쳐 세부 설계가 진행되었다. 이 계획에는 건설성 중앙 도시 설계 연구소, 건설 대학, 평양시 인민 위원회, 조선 인민군 583군 부대, 그리고 헝가리 건축가 팀이 각자의 안을 내서 몇 차례에 걸쳐 안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sup>42)</sup> 모택동 광장이나 다른 도시 주요 지역의 설계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정되었다. 세부 계획뿐만 아니라, 평양시 전체의 계획도 계속해서 변해갔다. 1958년에 발행된 『조선건축건설의 10년』에 소개된 평양시 총 계획도는 계속해서 변하는 평양시 도시계획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5> 이 도면을 통해, 중심부와 대동강 맞은편, 그리고 모택동 광장 부근은 이전의 평양시 계획도에서 보여준 틀을 유지하지만, 평양의 외곽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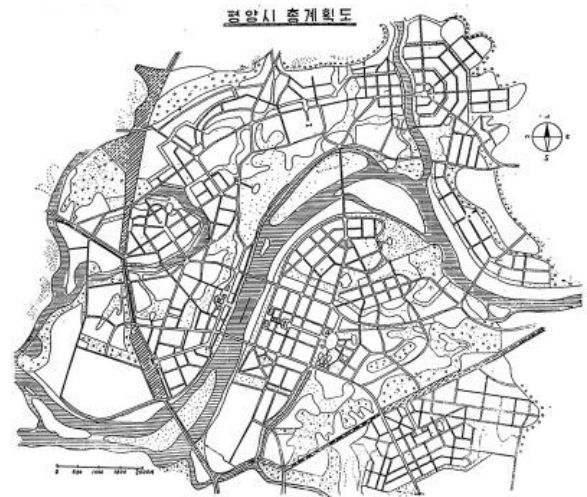


그림 5. 평양시 총계획도, 1950년대 중반 (『조선건축건설의 10년』, 조선국립건설출판사, 1958)

김정희는 휴전 후의 평양시 도시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가 1956년까지 평양시의 도시 계획과 김일성 광장의 계획과 관련한 글을 쓴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도 김정희는 평양의 도시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테면, 김일성 광장의 설계에 건설 대학도 시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학장인 김정희의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로 가면서 건설의 기계화, 표준화가 국가적 화두가 되면서 북한의 주요 건축가들은

40)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결정 제 125호』

41) 『평양시 제1차 복구 계획』, 로동신문, 1953년 7월 31쪽

42) 김정희, 「평양시 김일성 광장의 건축적 구성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 1956년 2호, 27쪽

도시 계획의 미적인 부분보다는 효율적 건설에 역량을 쏟았다. 이를 테면, 1956년 1월에 열린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건설의 기계화와 설계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의 연설을 했는데,<sup>43)</sup> 당시 건축가 연맹 위원장이었던 김정희 역시 이 부분에 주안을 두어야만 했다. 이러한 건설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북한의 경향과 관련해 평양시 인민 위원회 책임 건축가였던 오삼용이 당시 북한 건축계를 향해 던진 비판은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그는 1957년 조선 건축가 동맹 제3차 전원회의에서 평양시의 도시 계획 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도시 계획 설계 사업이 중요하고도 복잡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우수한 건축가가 직접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 계획을 전공하는 학생들마저 도시 계획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우수한 간부가 솔선 참가하며 민주 수도를 설계하며 계획하는 영예를 복돋아 주며 동시에 간부 양성의 방책을 연구할 것이 요구됩니다.<sup>44)</sup>

비록 그가 김정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김정희의 경우도 1950년대 후반에는 평양시의 도시 계획에만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후 북한의 도시 계획에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는 해외 건축가들의 기술지원이다. 앞서 말한 김일성 광장의 계획에 헝가리 건축가팀이 참여했던 것처럼, 50년대 북한 도시의 재건에서 해외의 건축가들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면, 함흥시의 복구가 독일 건축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청진시 도시 계획은 폴란드 건축가들이 주도했다.<sup>45)</sup> 이들은 주로 북한의 건축가들과 함께 일하거나 기술 고문의 형태로 참가했다.

## 5. 평양의 도시 계획과 소련의 기술지원

넓게는 북한의 전후 복구, 좁게는 평양의 전후 복구에서 공산 국가의 지원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평양의 복구를 위해 소련, 중국, 그리고 기타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은 북한이 가지지 못했던 기술과 건축 자재,

그리고 설비를 공급했다. 그 중 기술지원의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는 소련이었다. 평양의 전후 도시 계획 역시 소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김정희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의 건축가들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도시 재건에 있어서 “쏘련을 배웠[고],”<sup>46)</sup> 또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전쟁으로 파괴된 많은 도시를 빠르게 재건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 시기 소련의 건축가들은 이상화된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도시에 적용시키려는 태도를 배격했다. 다시 말해, 재건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이상주의 도시를 만들기 보다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연적 조건을 반영하고 기존의 건축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가 강했다.<sup>47)</sup> 이러한 합리적이면서도 절충적 자세는 평양의 복구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내각 결정 125호에서 도시의 역사적 유적과 대동강, 모란봉 등의 자연 환경을 존중하면서, 기존 도시의 불합리한 면을 고쳐 평양 시민들을 위한 계획도시를 만든다는 생각, 그리고 도시의 재건에서 중앙 광장의 설계가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은 전후 소련의 도시 계획의 영향이다.

소련에서 유학했던 김정희를 비롯한 북한의 건축가들은 소련의 도시 계획을 평양에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동시에 상당수의 소련 건축가들이 평양의 재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평양의 전후 도시 계획에 있어서 소련 건축가의 역할은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약 한 달 반여 전인 1953년 6월 2일, 북한은 부수상 최창익, 도시 건설상 김승화, 외교상 리동근 등이 참석한 평양의 재건에 관한 중요한 회의를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열었다. 이에 관한 폴란드 대사관의 기록을 보면, 평양의 재건계획이 195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재건 계획은 다른 공산국가들의 경험,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복구된 바 있는 스탈린그라드(현 볼고그라드)와 바르샤바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문서는 소련 기술자들이 평양 재건계획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련의 한 건축가를 평양 재건의 주된 건축가로 소개하고 있다.<sup>48)</sup> 이 기록에는 김정희를 비롯한 북한의 건

43) 김일성,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하신 김일성 원수의 연설」, 건축과 건설, 1956년 2호, 1~8쪽

44) 오삼용, 「평양시 도시 계획 설계 및 그 실현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과 건설, 1957년 1호, 12쪽

45) 김정희, 앞의 글, 1955년 1호, 11쪽

46) 김정희, 앞의 글, 1955년 1호, 11쪽

47) “Reconstruction in the U.S.S.R.”, *Architectural Review*, v.101 (May 1947): pp. 177~184

48) “Report from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Government of

축가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기록에서도 1951년이 아닌, 1952년을 평양 계획의 중요한 시작 지점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또한, 비록 이 기록대로 소련의 건축가가 평양의 주된 도시 계획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소련의 건축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기술고문단의 형태로 북한 건축가들과 함께 평양의 재건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개성시의 전후 복구 계획도의 경우 소련의 도시 계획가 라찌꼬 이고리 니꼬라위츠의 도움을 받은 건설성 중앙 도시 설계 연구소의 건축가들이 작성했는데,<sup>49)</sup> 평양의 도시 계획에도 유사한 형태의 소련의 기술 자문이 있었다. 소련은 평양의 재건을 위해 8명의 기술 고문을 1년씩 교대로 평양에 주재하며 기술지원을 하였다.<sup>50)</sup> 이들은 건축 디자인에서 구조, 설비 등의 자문을 해주었는데, 이들 중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도 있었다.

평양의 전후 도시 복구에서 소련 기술 고문들의 중요성은 김정희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평양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 건물의 설계와 더불어, 평양의 총 계획도 작성에도 소련 기술자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51)</sup>

소련 인민들은 우리에게 건설 기계, 건설 자료를 주었으며 훌륭한 설계 도면들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소련 기술자들은 벌써 전쟁 기간부터 우리 건축가 및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거의 모든 중요한 설계들에 소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 특히 평양시 총계획도 작성에 있어서 그들은 직접 끈술따짜야 [자문]를 우리들에게 주었으며 중요한 대상을 설계와 건설 행정에서는 그들의 의견이 레외 없이 참고되었다.<sup>52)</sup>

구체적으로 어떤 소련 건축가가 평양의 도시계획에 대한 도움을 주었을까? 1958년도 『건축과 건설』의 한 기사에 따르면, 1958년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건축가 동맹 회의에 참석한 북한 건축가 대표단은 로

취꼬라는 이름의 소련 건축가를 방문했다. 이 기사는 그를 평양의 전후 도시 계획을 도와준 소련 건축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 북한의 건축가들이 가지고 간 평양시 총 계획도에 대해 로취꼬가 언급한 몇 가지 대목은 흥미롭다. 그는 평양시 계획에서 남산과 창광산 일대의 녹지가 감소한 점을 지적했고, 중심부의 녹지대와 대동강 주변의 녹지와 연결이 부족함을 말했다.<sup>53)</sup> 이러한 조언은 그가 이미 평양시의 이전 계획도에 익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평양의 도시 계획은 다수의 북한 건축가들이 소련에서 파견된 건축 고문단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 6. 신화속의 김정희

김정희는 평양의 재건에 큰 역할을 담당했음에 분명하지만, 그가 단독으로 활약한 것은 아니었다. 평양 재건 총 계획도의 작성과 관련한 북한 측에서 나온 대부분의 문헌은 행위자를 “건축가들”, “일군들” 등의 복수형태로 기술하고 있다. 김정희 자신이 1955년 『건축과 건설』에 쓴 글에서조차, 전쟁 시기에 북한의 “건축가들”이 평양의 설계를 작성하였다고 하였다.<sup>54)</sup>

구체적으로 1951년 1월 김일성이 평양의 재건을 지시하는 장면의 묘사에서도 대부분 복수형의 어휘가 사용된다. 김웅상의 『주체건설력사의 갈피를 더듬어』에는, 1951년 1월 21일 김일성이 “도시설계부문 일군들”을 만나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의 작성에 대해 지도를 했다고 함으로써 여러 명의 건축가 집단이 평양의 설계에 참가했음을 말하고 있다.<sup>55)</sup> 1981년 출판된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에서도 마찬가지로, 1951년 1월 21일, 김일성이 “도시설계일군들”을 최고사령부로 불러 평양시 복구 건설 총 계획도 작성을 지시했다고 서술했다.<sup>56)</sup> 5년 뒤인 1986년 출판된 『수령님과 평양』에서도 같은 날 김일성이 “설계일군들”에게 평양시복구 총 계획도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서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1986년 이 글에서는 설계 일군들 중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온 사람도 있다

the DPRK on the Issue of Implementing the Plan of Reconstruction for Pyongyang,” June 05, 1953,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sh Foreign Ministry Archive. Obtained for NKIDP by Jakub Poprocki and translated by NKIDP by Maya Latynski.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54>)

49) 천기철, 『고도-개성시의 레일』, 로동신문, 1955년 4월 17일

50) 평양향토사 편찬위원회 편저, 『평양지』, 국립출판사, 1957, 522~523쪽

51) 김정희, 앞의 글, 1955년 1호, 11쪽

52) 김정희, 앞의 글, 1955년 1호, 11쪽

53) 리명숙, 「모스크바의 도시 건설을 보고」, 건축과 건설, 1958년 10호, 60쪽

54) 김정희, 앞의 글, 1955년 1호, 8쪽

55) 김웅상, 앞의 책, 1998, 59~69쪽

56) 김일,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0~11쪽

고 하며 비교적 자세히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정황상 김정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sup>57)</sup> 하지만, 이때까지도 현재 알려진 ‘평양의 설계자’ 김정희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1950년대의 문헌에서도 김정희가 평양을 설계했다는 기술은 찾기 어렵다. 평양의 재건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로동신문』이나 『건축과 건설』의 1950년대 기사들, 그리고 평양의 재건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단행본 중 1957년 출판된 『평양지』 그리고 1958년 출판된 『조선건축건설의 10년』 등의 책에서도 김정희를 평양의 도시 계획가로 묘사하는 기사는 찾을 수 없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김정희와 평양 전후 복구와의 관계는 거의 잊힌 듯 보인다. 김정희라는 인물이 평양의 도시 계획가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주로 1990년 이후의 문헌이다.

북한에서 1987년 개봉한 영화 ‘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는 평양의 도시계획가로서의 건축가 김정희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된다.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는 김정희라는 건축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북한에서 실제 인물이 영화에 등장할 때 이름을 다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과, 영화의 주인공과 실제 김정희의 행적과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이 영화가 김정희의 행적을 기반으로 만들어 낸 작품임은 틀림없다. 그 영화의 1부 ‘전쟁의 불길 속에서’에서 그는 유학도중 전쟁 중인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의 명을 받고 평양시 재건 총 계획도 작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그 이후로 발견되는 김정희에 대한 서사는 대부분 이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간다.

화려한 전반기와는 달리, 김정희의 후반부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김정희의 좌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조선건축』 1992년 2호에 실린 김정희에 관한 글에 따르면 그가 1965년 초 휴양각건설과 관련한 회의에서 보인 독선적 태도로 인해 당에서 큰 비판을 받았으며, 이 후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고 한다. 청진시 도시 설계 사업소를 거쳐 1972년 3월초 평안남도 도시설계사업소 안주 분소장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1975년 11월 사망한다.<sup>58)</sup> 그렇다면 1975년 사망한 김정희에 대한 이야기가 왜 10년 이상 지난 시점

에 영화로 만들어 졌을까? 이 영화가 만들어진 1980년대 후반부는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밀리며 위기의식을 느끼던 시기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라는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된 류경호텔의 건설과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유치 및 이를 위한 룡라도 경기장을 비롯한 대형 건축 사업 역시 이즈음의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북한의 경제가 더욱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던 90년대 초, 북한의 건축계는 1950년대 평양의 전후 재건에 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생산한다. 북한은 그 시대의 어려움을 과거 50년대 재건의 경험을 떠올리며 극복하고자 했다. 1991년 해체된 소련은 더 이상 믿음직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후 복구라는 역사적 사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화화된 이야기로 변한다. 이 시기에 소련과 중국, 그리고 기타 동구권 국가의 지원은 사라지고, 북한 내부의 노력,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의 명을 충실히 이행한 김정희의 노력을 강조하는 서사의 틀이 만들어진다.

전후 복구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 중 상당수가 이후 축출 혹은 숙청되었다는 사실은 평양 재건에서 김정희의 역할이 강조된 이유 중 하나다. 특히 50년대 말의 소련과의 숙청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축출된 김승화와 박의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승화와 박의완은 모두 소련파로서 비록 건축을 전공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해방부터 1950년대 중반 축출되기까지 북한의 핵심 권력에 있던 인물이었다. 김승화는 건설상과 국가 건설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박의완 역시 국가 부수상과 국가 건설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서 이들은 평양의 도시계획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종파사건은 이들과 관련이 있는 상당수의 건축계 인물도 함께 숙청되는 결과를 낳았다.<sup>59)</sup> 예를 들면, 조선건축가 연맹 부위원장이자 건설성 중앙 도시 설계 연구소의 소장이던 로식은 소련 우랄 공대를 졸업한 엘리트 건축가였다. 그는 1958년 숙청되는데, 건설성 중앙 도시 설계 연구소가 평양시의 도시 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생각해 보면 평양시의 복구에 로식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신순경 등의 중앙 도시 설계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던 건축가들이 숙청당했다. 또한, 국가 건설 위원회 도시 계획국장과 평양시 도시 계획 감독 국

57) 강성산·서윤석·강희원, 『수령님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0~11쪽

58) 리경심, 앞의 글, 1992년 2호, 8~11쪽; 「전 내각설계지도국장이었던 김정희동무에 대한 이야기」, 조선건축, 2004년 4호, 4~6쪽

59) 「동맹소식」, 건축과 건설, 1958년 1호, 39쪽

장을 맡았던 오삼용 역시 김승화를 추종했다는 명목으로 숙청당하는데, 그 역시 근대적 도시 계획 이론에 익숙하였으며, 실제 평양의 계획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sup>60)</sup> 이처럼 숙청된 인물의 역할은 이후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90년대 초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의 건축기술자 김영성의 회고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전시관을 매년 몇 차례씩 갱신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시사진에 찍힌 좌천된 인사의 모습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없애야하기 때문이라 한다.<sup>61)</sup> 평양의 전후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많은 건축가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역사에서 사라져갔다.

이에 반해, 김정희는 비록 60년대 말에 좌천되었으나, 이는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실각 혹은 숙청된 인물들과는 달랐다. 김정희는 1947년 소련으로 가는 첫 번째 유학생 그룹에 포함되었는데,<sup>62)</sup> 당시 유학생의 선발에서 사상성도 고려되었음을 생각해 보면 김정희는 이른 시기부터 북한 지도부로부터도 신임을 받고 있었다.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며 소련에서 유학한 많은 엘리트 건축가들이 숙청당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크게 공격받지 않았던 점 역시 그가 이후 김일성 영웅 신화의 중요한 조연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된다.<sup>63)</sup> 게다가 김정희는 이미 1975년에 사망해서 애국렬사릉에 안장되었기에, 그를 사후에 현창(顯彰)함에 따르는 위험도 크지 않았다.

북한의 평양 재건 서사에서 김정희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또 다른 이유는, 김정희가 실제로 1951년의 총 계획도의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1951년의 계획도는 이후의 계획도를 위한 초안에 해당하는 역할만을 수행했지만, 이 계획도에 있는 1951년 5월 20일이라는 날짜로 인해, 북한이 전쟁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평양의 복구 계획을 마련했다는 선전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1951년 계획도와 더불어 여기 참여한 김정희의 역할 역시 강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김정희라는 인물이 김일성의 명을 받들어 1951년 5월 20일에 평양의 총 계획도를 완성한다는, 일부의 사실에 기초한 신화화된 서사가 만

들어졌다. 이는 북한의 건축계는 물론, 이 후 1990년대부터 한국의 건축계에도 큰 비판 없이 수용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김정희는 그가 실제로 거쳐 간 역사적 흔적보다는 신화화된 모습으로 소비되어 왔다. 그 결과물이 ‘평양을 설계한 건축가’의 모습이다. 신화화를 통해 만들어진 김정희의 모습은 그의 실제 모습보다는 김일성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평면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 전까지 김정희는 전후 재건에서 소련의 역할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 중 하나였으며, 자신의 글에서 안쌌블리(ансамбль; 조화), 꿈뽀지찌야(композиция; 구성), 꾀술따찌야(консультация; 자문 혹은 조언) 등의 러시아어로 된 용어를 번역 없이 한글로 음차해서 쓸 정도로 지적으로 소련화 된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가 1953년 출판한 『도시건설』이 원래 러시아어로 쓰였다는 점 역시 그가 1950년대 중반까지 지적으로 친소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김정희의 모습은 북한의 재건 서사에서는 사라졌다. 이 신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김일성이며, 복합적 모습을 가진 김정희는 평양 재건 신화의 완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양의 재건이라는 서사에서 김정희는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요소였고, 실제로 평양의 재건을 다루는 다수의 문헌에서 김정희의 존재는 빠져있다. 서사의 핵심은 김일성이 1951년 평양시의 총 계획도의 작성을 지시했고 건축가들이 이를 완수했다는 점이다.

## 7. 맺음말

신화는 그 사회의 시대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신화로서의 평양의 재건은 선택적 기억 그리고 많은 역사적 사실의 제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김일성의 영웅서사에 필요한 김정희와 같은 인물의 역할은 강조되었고, 그 외의 다양한 건축가들의 역할은 그 ‘이야기’에서 점차 축소되어 마침내 사라졌다.

평양의 재건은 단일한 인물이 만들어내는 단일한 서사로 파악할 수 없다. 평양의 전후 도시 계획은 김정희라는 한 인물이 만든 것이 아니며, 한 장의 마스터 플랜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평양의 재건 계획은 1951년에서 시작하여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몇 년간 계속해서 수정되고 발전해갔다. 이 과정은 김정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북한 건축가와 소련의 기술 고문의 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60) 방재홍, 「10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높이 받들고 도시 계획 사업을 개선 강화하자」, 건축과 건설, 1958년 2호, 18~19쪽

61) 김영성, 「북한의 건축양식들」, 건축, 1993년 7호, 63쪽

62) 리정심, 앞의 글, 1992년 2호, 8쪽

63) 당시 북한의 유학생 선발에 관한 자료는 전현수 편저, 『쉬띠꼬 프일기, 1946-1948』, 국사편찬위원회, 2004, 109~110쪽 참고

평양의 전후 도시계획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그 계획이 처음 시작된 시점에서 휴전까지 약 2년 반의 시간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몇 년간 도시 계획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루하리만큼 긴 준비 및 실행 기간은 북한의 건축가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되었다. 김정희는 이에 대해 북한의 건축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도시의 복구 건설을 배웠으며, 실제 도시의 복구 총 계획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청소환 도시 계획가들은 발전되었으며 성장되었다”고 말했다.<sup>64</sup> 김정희 본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역시 평양의 재건 계획 이전에는 실제 도시 계획에 있어서 일천한 경험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정희를 비롯한 북한의 건축가들에게 평양의 재건은 값진 공부의 기회였다. 그들의 성장과 함께 평양의 도시 계획도 계속해서 발전해갔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가 오랜 시기에 걸쳐 만들어낸 평양의 도시 계획이 가지는 복합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료 비판과 다양한 참가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각 시기의 도시 계획의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족한 양의 사료와 저자의 빈약한 배경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성산·서윤석·강희원, 『수령님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2. 김민아,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3. 김정희, 『도시건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1953
4. 김정희, 「평양시 김일성 광장의 건축적 구성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 1956년 2호, 25~31쪽
5. 김정희, 「해방된 조선 인민의 도시 건설」, 건축과 건설, 1955년 1호, 5~21쪽
6. 김영성, 「북한의 건축양식들」, 건축, 1993년 7호, 57~74쪽
7. 김응상, 『주체건설력사의 갈피를 더듬어』,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8. 김일,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 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9. 김일성, 『김일성전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0. 김일성, 『김일성전집 14』,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1. 김일성,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하신 김일

- 성 원수의 연설」, 건축과 건설, 1956년 2호, 1~8쪽
12.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13. 「동맹소식」, 건축과 건설, 1958년 1호, 39~41쪽
14. 리경심, 「수령님께서 잊지 못해 하시는 건축가」, 조선건축, 1992년 2호, 8~11쪽
15. 리명숙, 「모스크바의 도시 건설을 보고」, 건축과 건설, 1958년 10호, 60~62쪽
16. 방재홍, 「10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높이 받들고 도시 계획 사업을 개선 강화하자」, 건축과 건설, 1958년 2호, 18~19쪽
17. 북한연구소 편, 『최신 북한인명사전』, 북한연구소, 1996
18.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 서울신문사, 2005
19. 오삼용, 「평양시 도시 계획 설계 및 그 실현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과 건설, 1957년 1호, 8~12쪽
20. 「전 내각설계지도국장이었던 김정희동무에 대한 이야기」, 조선건축, 2004년 4호, 4~6쪽
21. 전현수 편저, 『쉬떡꼬뜨일기, 1946~1948』, 국사편찬위원회, 2004
22. 정영수, 「북한의 고등교육」, 학생생활연구, Vol. 19, 1999, 1~15쪽
23. 『조선 건축 건설의 10년』, 국립 건설 출판사, 1958
24. 『조선대백과사전 4권』, 백과사전출판사, 1996
25.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7』, 조선중앙통신사, 1957
26. 평양향토사 편찬위원회 편저, 『평양지』, 국립출판사, 1957
27. 평양건설전사 편찬위원회 편저, 『평양건설전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28. 『해방후 10년 일지, 1945-1955』, 조선중앙통신사, 1955
29. Dongmin Park, *Free World, Cheap Buildings: U.S. Hegemony and the Origins of Modern Architecture in South Korea, 1953-1960*, UC Berkeley Ph.D. Dissertation, 2016
30. “Reconstruction in the U.S.S.R.”, *Architectural Review*, v.101 (May 1947): pp. 177~184

접수(2018. 2. 15)

수정(1차: 2018. 3. 18)

게재확정(2018. 4. 3)

64) 김정희, 앞의 글, 1955년 1호, 11쪽